

‘광주 창업페스티벌’ 520억 규모 투자유치 성과

창업기업 240곳·투자사 270곳 참가
역대 최대 규모 4500여명 참가 성황
실증빌리지·실증테크니컬투어 인기
대·중견·창업기업들, 55건 기술이전

광주시가 창업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 중인 ‘광
주창업페스티벌’에서 지역 창업기업(새
싹기업)이 총 520억원의 투자유치 성과
를 거뒀다.

특히 이번 창업페스티벌은 창업기업
(새싹기업) 240개사와 투자사 270개사
가 참가해 국내 최대 규모의 ‘실증 중심 창
업 행사’로 주목받았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광주창업페스티벌’에 역대 최대 규
모인 450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
다. 또 600여회에 달하는 사업 연계(비즈
니스 매칭) 상담회를 통해 지역 창업기업
35개사가 투자자로부터 총 520억원 규모
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성과는 지역 새싹기업들이 투
자 여건이 열악한 지역 한계를 극복하고
기술과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인 베슬에이아이
는 이벤처스 등 투자자와 158억원의 투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11월28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광주창업페스티벌’에 참석해 내빈들과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시 제공**

자협약을 체결해 세계시장 진출의 계기를
마련했다. 스페이스비전에이아이와 바이
벤처스 등 투자사는 40억원 투자협약을
맺어 인공지능 디지털 광고 사업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씨아이에스케이
칼, 에스티에이치, 리셀 등은 국내외 투자
자들로부터 총 322억원의 대규모 투자
의 향서를 체결했다.

광주시는 행사 전부터 14회에 걸쳐 시
행한 사전행사를 통해 기업에 대한 정보
를 공유하고, 서로 관심 있는 창업기업과
투자자를 연계해 창업페스티벌 현장에서
직접 만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

으로 지원했다.
광주시는 투자협약과 양해각서를 체결
한 투자자에 대해 실무자로 이어질 수 있
도록 지원기관별로 투자유치 전담팀을 구
성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2024 광주창업페스티벌은 ‘실증’
을 새롭게 시도해 눈길을 끌었다.

행사는 ‘실증도시 광주’ 비전 제시와 창
업생태계 동반성장을 다짐하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광주시 전역 실증제품(25개)
의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실증빌리지’
△수요기관 및 투자자가 직접 참여기업과

만남을 가지는 ‘실증테크니컬투어’ △차
년도 실증 수요조사 및 장소제공이 가능
한 기관과 협업을 추진하는 ‘실증Q&A
관’ 운영 등 ‘실증도시 광주’를 전국에 알
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개막식에서는 ‘미래를 이끄는 실증도시
광주, 성장의 날개를 펼치다’를 주제로 국
내 최초로 도시 전체를 창업기업의 실증
무대로 제공했다. 광주시는 창업친화도시
로 대변신을 가속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등 관람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광주시 전역에서 시행 중인 25개 실증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상담할 수 있는 ‘실
증빌리지’도 눈길을 끌었다. 실증빌리지
에서는 실증제품을 체험하며 홍보서포터
즈로부터 실증현황을 안내받을 수 있는
해설투어링도 진행했다. 실증제품수요기
관 및 투자자가 실증빌리지에서 진행된
실증 테크니컬투어를 통해 7개사 참가기
업이 12개 수요기관과 연계하는 성과를
냈다.

‘실증Q&A관’에서는 실증이 시급하나
기관 협의가 어려운 기업·제품을 대상으
로 장소제공형 실증 수요조사를 진행해
△도돌랩(항공조명 공기살균기) - 광주
교통공사 △이솔테크(비대면 선별진료
소) - 시립요양병원 △비바랩스(노인 맞
춤형 운동프로그램) - 고령친화산업지원

센터 등 실증아이템 8건이 매칭됐다.

이는 광주시가 그동안 지역 성장 산업
으로서의 창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판로
를 개척·지원하는 ‘창업기업제품 실증지
원사업’ 추진에 집중한 소중함 결실이다.

대·중견기업 개방형혁신전략(오픈이
노베이션) 전시관에는 삼성 C-Lab,
IBK광공, 한국산업은행, 호반그룹, SK
텔레콤, HD현대삼호, 비온사이노베이
터, 디에이치글로벌, 호원 등 국내외 대·
중견기업 16개사가 참여해 관람객들의
인기를 끌었다. 특히 대·중견기업들은 창
업기업과 55건의 기술이전 및 후속 투자
를 진행키로 해 실질적 협력의 가능성을
열었다.

사전 투자매칭과 대기업 개방형혁신전
략 등 사전행사를 통해 창업기업의 지속
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협업모델 발굴 역
량을 강화한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이
는 광주시가 ‘창업성공률이 높은 기회도
시 광주’를 목표로 창업지원정책과 연계
해 다양한 창업 행사를 확대해 온 결과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이번 광주창업
페스티벌은 일회성 전시행사를 탈피하기
위해 사전에 창업기업과 대기업, 투자자
간 매칭행사를 지속 개최했다”며 “앞으로
창업을 위해 찾아오는 도시, 실증을 위한
포용의 도시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광주신세계, 크리스마스 케이크 선배

본관 지하 1층 ‘노티드’ 등

광주신세계가 크리스마스 연말 파티
에 어울리는 다양한 종류의 케이크를 판
매한다.

5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본관 지하 1
층에 위치한 ‘노티드’는 지난 4일과 11일
각각 새로운 케이크 디자인을 선보인다.
‘리본 쇼콜라 라스’, ‘스트로베리 스노
우’, ‘허그 미! 스노우맨’, ‘메리 피스타치
오트리’ 등 귀여운 디자인의 케이크와 크
리스마스 전통 디저트인 ‘슈틀렌’도 함께
판매할 예정이다.

특히 노티드는 케이크 사전 예약을 통
해 최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16일까지 카카오톡 예약 플랫폼을 통해
예약할 경우 19일부터 31일까지 날짜를
지정해 픽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SNS에서 핫한 케이크는 ‘하트
티라미수’도 선보인다.

광주신세계는 본관 지하 1층 행사장에
서 13일부터 ‘하트 티라미수’ 팝업스토어

를 열고 오리지널, 솔타카라멜, 피스타치
오, 레몬 얼그레이 등 4가지 맛의 티라미
수를 선보인다.

초콜릿으로 된 티라미수 겉면을 톡톡
깨서 먹는 독특한 형태의 티라미수 케이
크는 SNS에서 유행이 시작돼 고객들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23일부터 25일까
지 ‘키친205’, ‘궁전제과’ 등 브랜드에서
도 딸기케이크를 판매한다.

매년 연말마다 웨이팅이 생길 만큼 딸
기케이크로 유명한 ‘키친205’에서는 딸
기케이크를 일별 300개 한정 판매한다.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4시에 각각 선
착순 번호표를 배부하며 ‘딸기발케이크’
와 ‘딸기발 케이크 미니’ 중 1개만 구매가
가능하다. 특히 한정판매인 만큼 수량이
마감되면 조기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기존에 따로 케이크를 판매
하지 않는 ‘궁전제과’에서도 이 기간에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선보일 예정이다.

나다운 기자

보해양조, ‘빈 용기 우수 회수주체 포상’ 최우수상

표준용기 활용 자원 순환 앞장

주류 전문기업 보해양조가 환경 친화
경영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보해양조는 지난 4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2024 빈 용기 우수 회수주
체 포상 시상식’에서 생산자 부문 최우수
상을 수상했다. 자원순환보조금관리센터
가 주최한 이번 시상식은 빈 용기 재사용
을 통해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기여한 우

수 회수주체를 선정해 포상하는 자리다.

이번 수상은 표준용기 출고비용, 출고
대비 회수비용, 타사병 반환수용 등의 정
량평가와 함께 신제품의 표준용기 도입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최근 소주 제조기업들은 특색 있는 제
품 이미지를 위해 녹색병이 아닌 별도의
용기를 제작하는 추세다. 반면 보해양조
는 지난 4월 출시한 ‘다시, 마주’에 표준
용기를 적극 활용해 자원 순환 실현에 앞

장섰다.

“다시, 마주”는 세계 최초로 다시마를
핵심 주재료로 활용한 소주로, 완도산 청
정 다시마의 특성을 살려 쓴맛과 알코올
냄새를 잡고 부드러운 맛을 구현했다.
15.8도의 저도수에 제로수거 레시피를 적
용해 건강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역 상생 우수사례로 인정받
아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 소상공인 우수제품 할인전 개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2월
동행축제 기간에 맞춰 6일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광주 소상공인 우수제품 할인
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소상공인연합회의 ‘힘
내라! 소상공인 한마당 축제’와 연계해 지
역 소상공인들이 선보이는 다양한 우수제

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준비했
다. 이번 할인전에는 광주의 숨어있는 우
수 소상공인 16개 점포가 참여해 소공인이
직접 만든 백일홍팍피, 액막이명태, 복
주머니 등 공예품과 호두과자, 마들렌, 파
배기 등 지역유명 간식, 전문가들이 추천
하는 두피·모발 관리용품품을 최대 40% 할

인 판매한다. 대한네일미용사회가 참여하
는 프로그램인 ‘만원의 행복 네일아트’는
불거리와 함께 저렴한 가격으로 네일케어
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동행축제를 맞아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
다. 판매전에서 2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
에게는 ‘고급 무릎담요’를 증정하고 행사
기간 중에 현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위
해 ‘장바구니와 핫팩’을 무료로 제공한
다. **박소영 기자**

재테크 칼럼

추락하는 한국경제 ‘인재’로 미래 준비해야

한국경제의 앞날이 심상치 않다. 수출,
소비, 투자 등 거의 모든 경제 분야가 위축
되고 있고 한국은행은 내년 1%대 경제성
장률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암울한 보
고서를 내놨다. 지난 3일에는 윤석열 대
통령이 느닷없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높였다. 자본시장으
로는 초대형 악재다.

한국경제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조짐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소비
위축으로 자영업자의 폐업 건수는 사상

최대인 100만건을 넘나들고, 롯데, 포스
코 등 10대 기업들이 위기설에 휘말리고
있다. 한국기업을 대표하는 삼성전자마
져 험난한 폭풍을 맞고 있다. 특히 기술주
가 모여있는 코스닥 시장의 지표가 2년째
전쟁 중인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올해
20%가 넘게 추락하며 하락 순위 세계 1
위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30%가 하락한
러시아 증시와도 전평도 없는 한국이
10%p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한국 산
업을 대변하는 반도체 분야도 D램 메모

리 등의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허용해
버렸고 유화, 기계, 전자 등 기술력의 우
위를 바탕으로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
여 중국을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끌
어 올렸던 저력도 각 분야에서 중국이 속
속 중간재를 자급자족 하면서 옛말이 되
고 말았다.

반도체의 꽃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는
대만을 따라잡겠다던 삼성전자의 공언과
는 달리 오히려 대만의 TSMC에게 계속
시장을 잠식당하면서 30%이던 점유율이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10%대까지 밀려버렸
다.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에서도 미국
등 선진국 IT 기업들
에게 한참을 뒤지고
있다. 한국의 IT 강국
의 이미지는 이제 빛
바랜 추억이 되어가고
있다. 설상가상 관세
대통령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한
국경제에 시름을 안겨주고 있다. 앞으로
세계경제전쟁의 판도를 결정할 IT 산업
등 4차산업은 빛의 속도로 발전해 갈 것이
다. 잠시 머뭇거리다가는 과거의 개도국

시절로 전락할지 모른다.
그러나 과거 한국의 저력이라면 지금의
위기는 아직도 극복이 가능한 시기다. 기
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손에 손을 맞
잡고 헤쳐간다면 충분히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 국가든 기업이든 위기 때 필요한
것이 강력한 리더십이다.
기업부터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IT
인재를 끌어 모으고 기술 한국의 길을 다
시 열어야 한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특히
4차산업은 탁월한 인재들에 의해서 생사
가 달려있다.
인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기업이 그 기
업과 한국의 미래를 결정한다.